



기독교 문화론

성인경

1. 현대 문화의 현상들

(1)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톨킨(J. R. R. Tolkien)이 [반지의 제왕]에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요즘 청년들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가, 아카데미상을 몇 개나 받았는지가, 피터 잭슨 감독과 배우가 어떤 사람들이며, 제작 배경이 된 뉴질랜드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징그럽고 흉측한 장면이 컴퓨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많은 군사와 말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정신이 팔려있습니다.

톨킨이 말하고자 한 것은 절대 반지가 상징하는 권력의 메카니즘이나 우정의 아름다움, 선과 악의 대결, 약자와 강자 사이의 긴장과 협력, 역사의 배후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의 작용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유흥준이 잘 지적했듯이, "관념적 예술 외적 요인에 많이 쫓린 경향을 거부하고 보다 직접적이면서 생기 있고 본질적인 예술론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푸른초상2

서정태의 [푸른초상2]는 제1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문화비평가 유흥준씨에 의해 한국 최고 작품으로 칭찬을 받은 작품입니다. 1)한국적 전통 색인 단청백(丹青白) 색을 현대화했는데, 고궁이나 사찰에서 보던 색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색으로 거듭난 색이었습니다. 2)크기와 규모 면에서도 당대 최대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호수로 따질 수 없는 거대 작품이었습니다. 3)특이한 것은 메타포가 매우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타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큐레이터 박영택의 비평입니다. "상징성이 농후한 성적인 도상 문양들이 화면 내로 찾아들고 스며들어 있다. 꿈틀거리는 선, 울퉁불퉁한 형태감, 솟아오르거나 부풀려진 것, 뽀족하게 솟아오른 것, 움푹 들어 가거나 유선형의 형태를 지닌 것, 길다랗고 다발처럼 흐트러져 있거나 휘어진 그리고 미세하게 그어진 구불거리는 단선들과 촘촘히 찍힌 점들, 그 모든 형태감들은 철저하게 남녀의 생식기와 신체적 특성에서 감축되고 매만져지는 부분들이다."(큐레이터 박영택)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3) 다윗상

서양 석상 문화의 최고걸작입니다. 예술적으로는 거친 돌로 남자의 거친 몸매를 잘 표현했으며 기술적으로는 기하학적인 완벽한 조형미를 갖추었습니다. 그야말로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었고, 현대판 '몸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다윗'이란 이름은 단지 제목으로 채용되었을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실존 인물이었던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윗보다는 자신이 이해한 유대주의를 바탕으로 단지 다윗이란 이름을 따 온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다윗상]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위대하다'는 르네상스 시대를 표상하는 세기적 작품으로서 미래에는 신의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시대가 다가온다는 사상을 상징화한 작품입니다. 그의 우람한 팔과 손이 인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가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본주의의 이상적인 남성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는 말하기를 "만약 처녀가 이 조각을 감상하고 [다윗상]의 남성다움에 빠진다면 그런 남성이 나타날 때까지 결혼을 못할 지도 모른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4) 석굴암

[석굴암]을 유네스코에서도 주목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지도자 47명이 '한국미의 근원을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으로 [석굴암]을 선정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석굴암의 종교성이나 사상성 때문이 아닙니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되고 사실적이면서도 우아한 멋을 한국적으로 창조해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돌과 빛의 멋진 조화 혹은 자연과 과학의 조화는 고대 한국 미학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친 돌을 재료로 사용했지만 인자한 미소와 완벽한 기하학적 조형미로 남성미를 멋지게 담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돔 형태의 석굴과 거대한 석상과 수많은 벽화를 조각하는 데는 고도의 기하학과 각종 건축 공법과 석공기술이 사용되었고 미학적인 대칭법, 원근법 등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석굴암]의 자연 습기 제거 기술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예술이 우상이 되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 될 때입니다.

(5) 다다익선

백남준의 [다다익선]은 현대 미술관 중앙 홀에 놓인 한국인의 자랑이며 현대 포스트모던 예술의 극치입니다. 수 백 대의 모니터로 화면마다 다른 색깔과 메시지를 전하는 그야말로 비디오아트 세계의 걸작입니다. 특히 모니터마다 품어내는 모종의 원시적 신비성과 현대 과학의 조화는 그의 상상력과 예술성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마디로 '첨단 과학 + 장난스런 예술 + 원시적 종교'가 뒤엉킨 복합 예술품입니다. 그러나 그 제목이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 작품의 세계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입니다.

조선일보 전시관에서 보여준 [커뮤니케이션 타워(Communication Tower)]라는 작품은 비디오, 컴퓨터, 모니터, 각종 탈바가지 등이 온갖 전기 줄이 칭칭 감긴 피라미드 기둥 사면에 뒤엉켜서 독특한 예술적 조화를 자아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상한 사람마다 그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예술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가 말한 대로 “예술은 장난이며 사기이다.”라는 것을 입증한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난 같은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듀상이나 케이지처럼 아방가르드의 이탈과 장난이 일상이 되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이유는 작품의 질에 비해 지나친 명성과 부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2. 현대 문화의 세계관적 특징

(1) 자기 만족과 도취인 개인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기만족과 도취의 시대입니다. 너도 저도 “자기 밖에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자기 사랑(self-love)”이 아니라 사실은 ‘자동 사랑(auto-love)’입니다. 즉 생각했다 하면 자동기 어처럼 자기 밖에 모르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현상을 말합니다.(디모테후서3:1,2)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narcissism)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만족과 도취에 빠진 자기 도취증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대학생 청년들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악하여 높은 교양과 매너를 자랑합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고 지성적이고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주 경건하면서도 우아하고 신사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남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유와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족과 도취에 빠져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궁과 교만”이 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공주병, 왕자병, 천재병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2) 물질주의의 마력에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고, 돈이 신(神)이 되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믿는 유물론적 사고와 태도는 문제입니다. 예술도 문화도 철저하게 상업적 목적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현대인은 ‘돈의 파워’를 너무 일찍 알아차린 세대입니다. 그들은 ‘돈이면 안되는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신주의(物神主義) 혹은 물질주의(物質主義)라고 합니다.

물질주의는 세상과 인간을 유물론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 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보다는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필연적인 결과는 무한 경쟁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이 없는 무정한 세상이 만들어 집니다.(디모테후서 3:3) 이웃에 대한 무관심은 사랑의 결핍에서 찾아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는 말이 있듯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문화는 물질주의가 가져다 준 해약입니다.

(3) 말초적 쾌락주의에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디모테후서 3:4) 기분 내키는 대로 성을 즐기고 갖고 놀자는 시대입니다. ‘쾌락의 절제보다 활용’을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몸짱 시대”, 즉 건강과 섹스(Sex)가 신이 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살자.” “재미있고 신나는 것이 최고다.”는 것에 최종적인 가치를 두는 ‘웰빙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성의 주체성' 논리를 내세워 모든 성 행위의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귀한 성담론을 철저하게 상대화(相對化)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팅(Gary Gutting)이 지적했듯이 “비록 진리는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소망을 던져주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더욱 파격적인 것입니다. 성해방, 혼전섹스, 동성애 등을 통해 기존의 성담론이 해체하고자 하는 목표물은 결국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성담론입니다.

(4) 문화적 신비주의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최첨단 블록버스터 영화라 할 수 있는 [매트릭스]마저도 신비주의로 가득합니다. 스타일은 전자와 과학으로 옷 입고 있으나 사상과 철학은 종교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라는 것은 “사랑이 최어야.” “믿음이 필요하다.”고 수도 없이 읊조리지만 결국 허구로 끝납니다. 종교적, 영적 형식은 화려하지만 영적 능력은 고갈 상태입니다. 대신에 오늘날의 가장 인기 있는 대체종교는 ‘문화적 신비주의(文化的 神秘主義)’입니다. 문화적 신비주의는 참된 영적 신비가 아닌 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모종의 초월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비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큼니다. 왜냐하면 참된 영적 체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종교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를 [매트릭스] 못지않게 모든 영역에서 여러 모양으로 전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종교적 관계를 벗어날 때마다 종교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다른 대체 종교를 찾았고 그것은 윤리적인 부패로 이어졌습니다.(로마서 1:25,28) 세계는 지금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각종 문화적 신비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5) 인식적 상대주의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믿습니다. 진리관에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바른 교훈이나 진리보다는 사욕을 좇고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디모데후서4:3,4)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적인 혼돈과 정신적 방황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절대적인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론을 가지고 삽니다. 정직하게 진리를 찾는 젊은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공백을 신비주의로 채웠듯이, 지적인 공백은 감각, 혹은 비이성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느낌으로 사세요.”라는 슬로건들이 판을 칩니다. 그 결과,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느낌에 매달리기를 즐기고 진리에서 떠나서 감각의 극단을 추구해 보는 것이 요즈음의 디지털 감각입니다.

3. 성경적 문화예술론

(1) 문화 예술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꽃 한 송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별 무리에서부터 특히 인간의 내외적 신비를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divine nature and power)’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줍니다.

그 분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그 분의 능력과 신성으로 자신의 존재 바깥에 독립적으로 인간과 자연과 영들을 창조하셨고 그것은 전적으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분을 위대한 창조자이며 예술가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화, 즉 정치, 경제, 사회, 예술의 근원이며 주인이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로마서 11:36)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the Lord)”이시기 때문입니다.(골로새서1:16-18) 스킬드(K.Schilder)는 이 점을 두고 “그리스도가 역사의 열쇠이시며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인간의 문화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만물과 문화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2) 문화 예술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문화를 관리하고 창조할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땅과 세상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인간들에게 위임하신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1:28)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후에도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에게 관리를 부탁한 ‘땅’은 규칙적인 안식이 필요할 만큼 작취와 오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법과 희년법은 탄식하고 있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제도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출애굽기 23:11, 레위기 25장) 그래서 타락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베이컨(F. Bacon)이 그 뜻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타락에 의해 손상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과 종교요 다른 하나는 예술과 과학이다.”

(3) 좋은 문화 예술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인간의 문화는 종말에 어떻게 될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문화는 다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되는 것인가? ‘완전멸절설’이나 ‘완전재창조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다 불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쁜 문화는 다 불타고 소멸될 것이지만 좋은 문화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요한계시록21:5) 인간이 만든 문화적 업적들, 즉 “그들의 행한 일이 따라올 것”(요한계시록14:13)이라고 말하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베드로후서3:10)고 말합니다.

한국이 낳은 교의신학자 박형용 박사는 그의 [내세론]에서 멸절설에 대항하여 “만유갱신설(萬有更新設)”로 강하게 변호한 바가 있습니다. 1)창조는 완성을 예상한다. 2)구속은 중생을 예상한다. 3)부활은 회복을 예상한다. 4)신(新)은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이다. 5)베드로후서 3:6의 용해는 절멸이 아니라 변형이다. 6)마지막 날에 변화될 세계는 전 물질적 우주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변화이다. 만약 지구와 문화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절된다면 사단의 계획인 창조 세계의 파멸이 성공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4) 문화 예술은 선교의 가장 좋은 접촉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주로 유대 팔레스틴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1) 구약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피난처”로, “요새” 등으로 묘사한 것은 중동지방의 목가적 환경적 전쟁적 문화 이미지에서 빌려온 것이며, 2)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혹은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팔레스틴 문화에서 빌려온 것이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남편, 선지자, 성전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신 것 등도 그들이 익숙한 문화의 옷을 빌린 것입니다. 3) 요한이 그리이스의 철학적 용어인 “로고스”란 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incarnation)’ 사상을 전하는 것도 문화를 통한 복음의 다리입니다.(요한복음1:1-14)

그리고 4)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비, 바람, 농사(사도행전14:8-20)를 사용하거나, 아테네에서는 지식, 알지 못하는 신을 사용한 것이라든지(사도행전17:16-34), 행정가인 아그립바 왕에게는 논리와 합리성을 사용한 것(사도행전25:13-27) 등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제를 대화의 접촉점으로 삼고 토론을 전개한 예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적 방법을 시도한 예수님, 바울,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변증학적 방법론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 ‘문화적 변증학(cultural apologetics)’ 혹은 ‘문화적 전도법(cultural evangelism)’입니다.

(5) 세상 문화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비기독교인들의 지식과 문화라고 하더라도 좋은 것이고 진리라면 '2+2=4'와 같은 수학 원리, 건축법, 의상 디자인, 매장법, 목공기술, 과학, 물리학 등 좋은 문화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23:1-20; 역대상 22:1-4; 역대하 2:1-18; 역대하 2:1-18)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종교개혁가 칼빈(J. Calv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플라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플라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 시켜야”(고린도후서 10:5)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너무 무분별하게 수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나 비기독교적 세계관까지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짓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민족적인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우상 문화로 변질된 것이면 히스기야 왕이 구리 뱀을 없애버렸듯이 미련 없이 파괴해야 합니다.(열왕기하 18:1-4) 그러나 단군신상과 같은 우상이라도 합법적으로 철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문화 예술 비평의 기본 원리

(1) 예술적 영감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화의 생명은 예술성에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할 때나 비평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예술 외적 요인’보다는 ‘예술 내적 요인’들입니다. 예술성은 톨킨의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작가의 상상력과 독창성에 달려있습니다. 아이디어

(idea)가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없이 재미만 추구하거나 기발함만 자랑하려고 하는데 결코 생명이 길지 못한 작품이 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상상력과 독창성 자체가 예술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작품이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짜임새가 있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이디어의 기발함과 특이함 혹은 일탈’ 하나만으로는 예술적 생명력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술 내적 생명력을 위해 별들의 세상 저 건너편까지도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야 하며, 영성과 지적 깊이가 겸비 되어야 합니다.

(2) 기술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기술이란 과학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술성에 필적할 만한 우수한 기술이 동원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술성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살려내는 기술력이 뒤따라 주지 않으면 아이디어만 좋지 생명력 있는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명작들이 불타고 부서지고 사라진 것은 재료와 기술 등이 예술성을 따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물감을 잘못 선택한 이유로 색이 다 닳았고 관객들로부터 20여 년간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종교성이나 사상성은 뛰어나지만 예술성이나 기술성이 형편없으면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밀레종”이라 부르는 성덕여왕 신종의 은은하고 신비한 그 소리는 고대 신라 금속 기술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종 연구의 대가 황수영 박사는 “에밀레종의 소리는 원통과 더불어 종 머리에 붙은 피리 모양의 둥근 통에 그 소리의 비밀이 있다.”며 그 해결책을 삼국 유사의 만파식적(萬波息笛)에서 찾았답니다. 이에 대해 성낙주 선생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상원사종이 제작된 지 다시 46년이 지나 에밀레종이 주조되었으니, 그것은 통일신라기 금속공예술의 집대성이자 중국풍의 영향을 벗어난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새로운 양식의 정착이라는 점에서 일대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3) 작품의 메시지와 사상을 살피야 합니다.

모든 예술 작품은 그것을 만들어낸 작가와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의 주된 사상을 반영합니다. 파노프스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작품 속에는 인간 정신의 기록과 기쁨과 고뇌, 소망과 믿음이 서려 있는바 미술품을 통해 인간 정신의 발달과정을 탐구하면서 더 높은 고양을 구현하는 것이 미술사의 임무이다.” 아무리 예술과 기술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미켈란젤로의 [다윗]처럼 그 작품은 기독교적인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핵심 세계관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인본주의(humanism)’입니다.

특히 20세기 예술은 메시지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작가 자신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사가 없이 작품 활동 자체가 자기 내면적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광기에 불과할 때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작품 자체가 너무 난해 하거나 천박하여 작가와 관객 사이에 의사소통이 단절되거나 그 결과 작품과 관객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단절되기 일쑤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무제’라는 제목을 붙인 작품들이 많은데, 그것은 지난날의 예술과는 다르게 요즘은 작가의 사상이나 철학을 관객에게 설득하고 전달하기 보다는 관객이 나름대로 느끼고 만들기를 애초부터 추구한 결과입니다. 안타

까운 사실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겉으로는 관객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작가의 모호한 사상성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고 의사소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도덕성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종종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화가나 영화감독, 배우, 사진작가들은 베드신이나 누드화 등 어디까지 벗길 수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현재 국제 영상법에는 “음모가 보여서는 안 된다”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예술인들도 국제 영상법의 범위 안에서 더 아름답게 표현한다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작품 활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예는 기독교 화가 램 브란트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자기를 부르는 자기 아내의 누드화 [Danael]를 그렸지 않습니까? 프란시스 웨퍼도 “그 작품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과시한 작품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신이나 누드화에도 도덕적 정당성이 마땅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온갖 성 행위의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왜곡된 성까지도 정당화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은 동성애, 혼전 섹스, 혼외정사, 매춘 등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동침은 거룩한 것으로 말하지만 같은 장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 문의 시중드는 여인들과의 외도는 정죄합니다.(사무엘상 2:20-23) 성 폭력이나 빗나간 성담론의 현실을 고발할 문제의식도 없이 야한 장면을 상업적 목적으로 건전한 도덕성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라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5) 종교성의 승화는 문화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문화에서도 영성과 종교의 주제를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매트릭스]도 겉으로는 최첨단 과학 영화 같지만 사실은 온갖 종교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의 역할은 선자자보다는 영매와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사교적이거나 이단적이거나 반 기독교적인 접근을 부추기거나 혼합주의적인 종교적 장난을 예술적 방법으로 미화 내지 악용하는 것은 최악입니다. ‘낮은울타리’와 저희가 우리나라 영화예술 공윤심의위원회에 허가반대 운동과 공청회를 열었던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고 문화를 고도의 예술성이나 기술성도 없이 특정 종교의 교리나 상징으로 딱칠 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벨 김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최고의 기독교 영화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문화 자체가 종교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로크마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18세기부터 예술이 삶의 일상적인 기능에서 분리되기 시작했고 아름다움이란 것이 모사 대상에서 구분된 스스로의 의미를 지닌 추상적 특성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예술이 비종교적 종교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지금은 예술적 신비주의를 주시할 때입니다.

5. 전통문화와 기독교인

(1) 선별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대나라 히스기야왕(726-697 B.C.)은 즉위 초에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던 우상과 산당을 부수었

는데, 그 중에는 약 700여 년 전에 만들었던 모세의 놋뱀 혹은 구리 뱀도 포함되었습니다.(열왕기하 18:1-4) 구원론적으로 구리 뱀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허락하신 구원의 도구였고, 예수님도 신약에서 자신이 놋 뱀처럼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말씀처럼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쳐다보면 구원받는다라는 영적 진리가 숨어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요한복음3:14,15)

그러나 문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리 뱀은 고도의 예술적 과학적 작품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들, 이를테면 쇠를 만 질줄 알고 예술적 감각이 있는 조각가를 초청하여 그것이 불뱀의 독기를 이기는 '놋 뱀'이라는 조형물을 만들어 나무 장대 위에 세웠을 것이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때까지 보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우상숭배를 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왕이 구리 뱀을 파괴한 것은 그것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술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2)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기독교인은 폐기만 일삼는 문화 파괴주의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라 부르는 타종교인들로부터 많은 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들과 우호관계를 갖고 아내를 위해 마므레 무덤 자리를 구입해서 매장한 것이라든가(창세기 23:1-20), 다윗이 두로 왕 후람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재료를 수집한 일이라든가(역대상 22:1-4; 역대하 2:1-18),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과 나무에 능한 이방인 기술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그것입니다(역대하 2:1-18). 성전 앞에 돌 주물 작품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급 비밀에 속하는 이방 기술자들과 그들의 기술을 고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했습니다.

이방인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은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칼빈(J. Calvin)은 "플라톤으로부터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사도요한이 헬라사상에서 '우주의 근원' 혹은 '우주의 원초적 질서'를 표현하는 용어인 "로고스"(말씀)를 예수님에게 비유한 것이나(요한복음 1:1-3), 바울 사도가 사용한 구원에 대한 신학용어들은, 굳이 스토트(J. Stott)의 분석을 따르지 않더라도 "화목, 구속, 칭의, 화해라는 말들은 당시의 헬라 문화의 용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3) 적극적으로 개혁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선별적 폐기나 비판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혁입니다. 언제나 개혁은 폐기나 수용보다 지혜와 인내가 더 필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에서 종들이나 낮은 자들이 높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던 유대, 중동문화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문화'로 변혁하셨습니다.(요한복음 13:1-17) 그것은 폐기도 아니고 수용도 아니라 창조이었습니다. 전통문화 양식은 초대하 존중하면서도 그 속에 내포된 사상성과 도덕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로운 문화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몹시 타락한 문화까지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문화는 아주 지지분하고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문화를 무조건 비판

하거나 방관하기보다는 재창조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요한복음 4:1-47)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지역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으며, 남녀동등을 과시했으며, 잘못된 성 생활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으며, 이단문화를 정화하시며 타락한 문화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변혁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타락한 문화를 '복음의 다리'로 삼으셨습니다.

(4)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고 바꾸어 주지 않으면 다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인간은 회개하고도 다시 타락한 문화로 되돌아갈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진 문화를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1) "인자(The Son of Man)"라는 자기 호칭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부른 특수 언어입니다. 2) 독특한 구약 해석, 질문에 대한 답변 태도, 제자훈련 방법, 일상적인 생활 태도 등, 3) 성찬식은 십자가의 복음을 "보이는 말씀"으로 만드신 살아있는 제도적 문화입니다. 그 중에 여성과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 것은 재미 있습니다.

1) 예수님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과 종족주의를 타파하시고 평등주의를 세우셨고(요한복음 4:9, 마가복음 7:24-30), 2)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전통을 반대하시고 여성들의 새로운 시도를 반기시기도 했고(마가복음 14:3-9), 3) 여자들의 직업에 대한 편견을 꾸중하시고 여성들의 선택을 존중하셨고(누가복음 10:38-42), 4) 성적 범죄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수정하시고 성폭력의 무고한 희생에서 자유를 주셨고(마태복음 5:28), 5) 남자들과 동등하게 여자들도 선교사역에 적극 동참시켰습니다.(마태복음 28:1-11, 행 1:14)

(5) 서양 문화를 멀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남의 문화를 선호하고 우리 문화를 무시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외제가 좋다"는 말입니다. 외제가 좋은 것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외래 문화 선호 혹은 사대주의가 됩니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집도 서양식이고, 먹는 음식도 서양식이고, 듣는 음악도 서양식입니다. 모든 것이 서양식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서양 찬송이나 절기들입니다. 특히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에 배인데, 그것은 미국식입니다. 미국 고든콘웰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생 한 학생이 라브리에서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다니 너무 황당하군요."라고 할 때 부끄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문화를 답습하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많이 짓곤 하는데, 아름다운 한국 이름도 많은데 굳이 성경 이름을 짓거나 교회 이름 중에는 '데오빌로교회'도 보았습니다. 패션 디자인을 구약의 '제사장 옷'이나 '에봇'을 흉내 낸다든가, 성경번역을 할 때 구약적인 하나님 칭호인 "야웨"나 "엘로힘" 등을 고집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유대주의의 답습 내지 모방이며, 문화적 유대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